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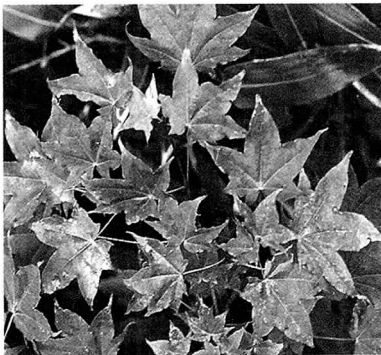
뼈를 이롭게 하는 고로쇠나무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에 딸린 갈
잎 큰키나무로 키가 20m쯤 자란
다.

고로쇠나무류에는 털고로쇠, 왕고로쇠, 우산
고로쇠 등이 있는데 이 중 우산고로쇠는 울릉도 특산이다.
우산고로쇠는 표고 500m 되는 남향의 산록에서 자생하
는데 추위에 강하여 서울에서도 월동이 가능하며 토심이
깊고 비옥한 사질양토를 좋아한다. 이 우산고로쇠는 특히
잎이 돋을 때의 황금색으로 빛나는 모습이 아름다워 많은
사랑을 받는다.

고로쇠나무의 수액은 옛부터 '골리수(骨利水)' 라하여
뼈를 특히 이롭게 하는 물질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요즘에
는 허약체질, 신경통, 위장병, 치질 등에 좋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한 뒤에 회복을 빠르게 하는 효험이 있다고 하여 거
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는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양력 3월 초순경, 즉 경칩을 전후하여 일주일 간이 적기이
다.



고로쇠나무 다른 단풍나무와
비슷한 손바닥 모양으로 마주
나며 5~7개로 얇게 갈라진다.
꽃은 암수한그루로 가지 끝에
산방화서로 달리고 5월에 황록
색으로 피며 시과(翅果)인 열매
는 좁은 각도로 벌어지고 10월
에 익는다.

직경 30cm 이
상의 나무에서
채취하는데 나무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달간 7,000ml
정도를 채취할

수 있다.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채취하는 광경을 보면 대개 지상 50cm로부터 100cm 되는 위치에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의 상처를 낸다. 즉 수피를 찢어서 이곳으로 수액이 흐르게 만드는 것이다. 한 나무에 3~4개씩의 이런 상처를 내고 있다. 물론, 상처를 내고 난 다음에는 상처를 융합해 주고 나무 자체에도 자연 치유력이 커서 그 해 여름쯤이면 아물게 된다.

수액은 색깔이 거의 없고, 맛은 담담하며 미약하지만 달착지근한 맛이 있고, 은은한 향기가 있다. 더구나 산도가 7도 정도여서 아주 합리적인 알카리성 음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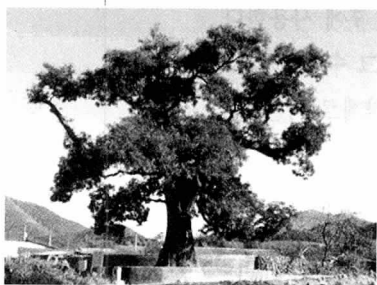
신경계통의 마비를 고치는 회화나무

회화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콩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이다. 크게 자라면 30m의 키에 허리 직경이 2m까지 자란다.

회화나무는 우리 나라 어디에도 심을 수 있는 나무인데 영남 지방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내한성과 내공해성이 강하여 공원이나 시골길가에 심기에 적당한 나무이며 정자나무로도 느티나무보다는 못하지만 그 다음으로 치는 나무이다. 옛날에는 서당이나 서원에 이 나무를 즐겨 심었다고 한다.

회화나무는 깃꼴 겹잎을 가지고 있어서 정감이 가득한 나무이다. 작은 잎은 달걀 모양 또는 달걀에 가까운 피침꼴로 7~17개의 작은 잎들이 마디마다 서로 어긋나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8월경에 새로 자라난 가지 끝에서 황백색의 꽃이 피는데 흰 나비 모양의 작은 꽃이 원뿌리꼴로 모여서 피어난다. 꽃의 모양은 아카시아 꽃을 닮아 많은데 크기는 그보다 약간 작아서 1cm 안팎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충남 당진군 송산면 소재지에
서 북쪽 지방도로를 따라 1km
쯤 가면 삼원리인데 이곳에서
능로를 따라 300m 가면 노거
수 회화나무(천연기념물 317
호)를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조선 인조 때 영의
정을 지낸 李容齊가 이곳 삼
원리에 내려와 집을 지으며
가문과 자손의 번영을 위해
심은 것이다.

회화나무의 꽃 피기 전의 봉우리를
'괴미(槐米)'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이
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피어나면 괴화(槐花)라고 부른다. 괴화
는 그 자체에 '루틴(Rutin)이라는 황색
소를 20~30% 가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지혈제로 쓰

이며 진경, 소종의 효능이 있어서 혈병, 토혈, 대하증,
임파선염 등에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꽃이 벌어지기 전
에 채취하여 햇빛에 말려두었다가 쓴다.

괴화를 '괴황(槐黃)'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것은 바
로 괴화가 염료로 이용될 때이다. 특히 종이를 노랗게 물
들이는 물감으로 이용된다. 괴화는 말려서 차(茶)의 대용
품으로 쓰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꽃이 피었다가 진 뒤에 열리는 열매도 그 모양이 특이하
다. 보기에 염주알이 이어져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을 이
루는 꼬투리가 생긴다. 빛깔은 초록빛이고 약간 살이 두꺼
운데 크기는 5~8cm 정도이고 10월에 익는다. 회화나무
의 열매를 보면 그 파란 꼬투리의 허리가 잘록하게 되어 달
려 있는 모습이 참으로 재미있고 귀엽다. 까만 염주알이 아
니라 파란 염주알이기에 고뇌보다는 해탈을 생각하게 된
다. 그래서인지 회화나무의 가치를 보면 느티나무처럼 어
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모습을 하고 있다.

회화나무의 열매를 '괴실(槐實)', '괴각(槐角)', 또는
'괴관(槐棺)'이라고 부르는데 강장제로서의 효과가 있으
며 지혈, 양혈(涼血) 등의 효과가 있어서 토혈, 각혈, 혈
변, 혈뇨, 장염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고 한다. 열매는 완전

히 익은 뒤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꼭지를 딴 후에 사용한다. 어느 때는 생열매를 즙을 내어 먹기도 하는데 그 수액을 '괴료(槐膠)'라고 해서 신경계통의 마비를 고치는 약제로 써 왔다.

상처에 새살을 돋게하는 노린재나무

'노린재'라고 하면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된다. 노린재는 9월쯤 밀감이 노릇노릇 조금씩 익기 시작하면 열매에 덩벼들기 시작하는데 심할 때는 그때가 어찌나 극성인지 나무에서 날아가는 소리가 우수수 우수수하고 들린다. 노린재가 밀감을 쏘아 즙액을 빨고 나면 껍질에 주사바늘 자국 같은 구멍이 남게 되고 그 주위가 차츰 탄탄하게 되면서 노란 혈색으로 결국 낙과(落果)를 한다.

그런데 나무에도 그 지긋지긋한 '노린재'의 이름을 딴 '노린재나무'가 있다니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노린재나무는 다만 가을에 단풍이 든 이 나무의 잎을 태웠을 때 노란 색의 재가 남게 된다고 하여 '노란 재'란 뜻으로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나무를 태운 잿물은 염색을 할 때에 색을 고정시키는 데 쓰인다고 한다.

노린재나무는 한명으로 '주조목(朱鳥木)' 또는 '우비목(牛鼻木)'이라고 하며, 갈잎 작은큰키나무(小喬木)이고 키는 2~3m 정도이다. 수피는 회백색이며 많은 가지를 펼치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있다. 쌍떡잎식물, 통꽃류에 딸린 한과(科)로서 떨기나무, 큰키나무로 열대, 아열대에 주로 나는데 그 종류가 많아서 전 세계에 무려 280여 종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노린재나무, 검은재나무, 검노린재나무, 섬노린재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전국의 산지, 표고 1,950m 이내에서 자

란다.

특히 검은재나무는 표고 700m 이하의 산록과 계곡에 자생하는데 나무의 키가 8m 정도로 추위에 매우 약하다. 제주도 지방에서도 매우 희귀한 나무로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노린재나무의 잎은 어긋맞게 나며 거꾸로 된 알 모양이며 5월이 되면 새 가지 끝에 작은 꽃들이 모여 핀다. 빛깔은 보통 희지만 황백색도 있고 향기가 좋다.

열매는 장과(漿果)의 구형(球形)인데 광택이 있으며 벽색(碧色)으로 익는다. 그러나 노린재나무의 열매라고 모두 벽색으로 익는 것은 아니고 백색으로 익는 흰노린재나무도 있다. 노린재나무를 우리가 정원에 심을 때에는 꽃과 열매를 감상하기 위한 것이 보통이지만 특히 바위 정원에 이 나무를 심으면 그 아담한 모습으로하여 잘 어울린다.

노린재나무는 약재로서 중요하게 쓰이는데 노린재나무의 가지를 '화회목(華灰木)'이라 하고 그 뿌리는 '화회근

(華灰根)이라 한다. 화회목은 수렴, 지혈 등의 효능이 있어서 상처에 새 살이 돋아나게 하고 설사, 이질, 음, 화상, 외상에 특효인데 감기, 오한, 뼈와 근육의 통증약으로 쓰인다.

약으로 사용할 때는 물론 탕약으로 달여서 주로 먹는데 때에 따라서는 말린가루로 연고를 만들어 상처에 직접 바르기도 한다.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산벚나무

봄이 되어 산벚나무 가지마다 옅은 분홍빛 꽃들이 수없이 피어나면 노을에 물든 구름을 보는 듯하다. 벚꽃은 일시에 피었다가 일시에 무너지는 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꽃 핀 모습보다 꽃이 지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고 한다. 더우기 벚나무는 꽃이 피는 기간이 짧다. 한마디로 굵고 짧은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벚꽃은 일본의 국화라 하여 우리들로부터 그 동안 많은 미움을 받아 왔다. 벚꽃을 보면 자연히 일본이 생각나고 일본을 생각하면 36년간의 압박과 설움이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보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리의 벚나무를 계속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산벚나무는 앵도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로 우리 나라 산지의 표고 1,600m 이하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제주도에서부터 전남, 황해, 함북, 사할린까지 분포하고 있다. 크게 자라면 키가 25m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는데 줄기는 다른나무보다 낮은 자리에서 여러 갈래로 보이며 가지를 많이 친다.

잎은 어긋나게 나고 달걀 모양의 타원형으로 잎 밑동이 둥그스름하고 끝은 뾰족하며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어린 잎



산벚나무 문일평의 '화하만필(花下蔓筆)'에 보면, 「어떤 학자의 설을 들으면 벚나무의 원산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바 수십년 전에 제주도에서 벚나무 원종을 발견하였다 하며 최근 또 남해도(南海島)에 속한 어느 무인소서(無人小嶼)에서 수백년 묵은 몇 그루 벚나무 고목이 발견되어 벚나무가 조선이 원산이라는 설이 차차 유력하게 증명되는 모양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은 발그레한 빛이 돌고 양면에 솜털이 많이 보이나 자라면 입맥 위에만 남게 된다.

산벚나무 가지의 껍질을 약재로 쓰는데 생약명으로는 '앵피(櫻皮)', 또는 '화피(樺皮)'라고 한다. 보통 생육기간 중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거친 부분을 다

듬은 후에 잘게 썰어서 사용한다. 진해와 해독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침, 두드러기, 피부염, 가려움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약재를 달여 마시거나, 달인 물로 환부를 자주 닦아 주면 된다. ●